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이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희망의 문

New Target 2030에 맞춘 디아스포라(이주민) 실행위원회의 선교 전략과 활동

글, 사진 문창선 선교사

/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 코디

서론

현재 세계 선교 패러다임은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서구권 교회들이 주도하던 선교는 이제 비서구권 교회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이 이끄는 선교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이주민)의 역할이 있다. 이주민들의 이동으로 “비서구가 주도하는 선교”와 “현지인들에 의한 선교”가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이 약 26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향한 선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로잔 4차 세계선교대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인(Mission-Minded Christian)’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선교 현장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으로, 한국교회에게도 시의적 절한 도전이었다. 실제로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홍 사무총장은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이주민들, 향후 선교계의 가장 큰 주제로 이주민보다 중요한 의제가 없다”며, 한국교회 평신도인 ‘선교인’의 직접 선교 참여가 매우 필요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는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KWMA는 국내 이주민 선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실행회는 로잔 운동의 정신과 제8차 NCOWE(전국세계복음화대회) 등에서 제안된 전

략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는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의 코디로서 실행위의 주요 활동과 사역, 그리고 향후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통찰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사역 개요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는 그동안 다양한 사역과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를 촉진해 왔다. 특히 2023년 중반 제8차 NCOWE를 전후하여, 거기서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 모임을 가동했다. 2023년 9월 8일, KWMA 본부에서 첫 이주민 전략 모임을 열어 한국교회와 이주민 사역의 연결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이어 10월 2~4일 강릉에서 개최한 “한국선교 방향 전환을 위한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서 NCOWE 8에서 제안된 주요 선교 이슈들을 논의했다. 10월 12~14일 인천에서 진행된 제2차 라운드테이블에서도 관련 의제들을 심화 토론하며, 선교인 세우기와 “250만 이주민 선교 메뉴얼” 등의 안건을 한국교회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연속 회의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인을 세워 현재의 선교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4년 들어서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 5일, 실행위 주도로 이주민 사역 세미나 준비 모임이 열려 다양한 분야의 현장 사역자들이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 어떨



게 도울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어 1월 24일에는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초청 보고회를 통해, 약 90여 명의 교단 및 선교단체 목회자들에게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전반에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주민 선교 훈련과 이단 대응 등 실무적 준비에 집중했다. 2월 8일, KWMA는 주요 교단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단 대처 전략 모임을 개최했다. 최삼경 목사, 서영국 목사, 진용식 목사 등 이단 연구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지와 국내 이주민 사회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각종 이단의 동향을 공유하고 선교적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2월 22일에는 KWMA 선교훈련위와 난민 실행위, 디아스포라 실행위가 합동으로 이주민 사역자 선교훈련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이주민 선교사로 섬기기 위한 훈련 커리큘럼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주민 선교 훈련 콘텐츠와 협력 방안도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실행위는 2024년 5월 24일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평신도 선교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KWMA 산하 3개 실행위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이 훈련학교를 통해 이주민 사역자를 제도권 선교사로 훈련하는 작업이 시급함을 알리고, 한국교회가 국제 선

교 동향 속에 이주민 선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훈련에는 평신도 선교운동 단체인 ‘비솔라이트(Be the Light)’도 참여하여 선교 자원 공유와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실행위는 교계 네트워크 및 공동협력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움직였다. 8월 20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최 제22차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의 프로그램 준비 모임에 디아스포라 실행위원들이 참여하여 이주민 선교 의제를 논의했고, 10월 31일에는 교단 선교부 리더십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Mission-minded Christian: People on the Move”라는 제목으로 로잔운동 내 디아스포라 선교 동향과 NCOWE 8 및 한선지포에서 논의된 이주민 선교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다양한 이주민 교회 및 사역 모델들도 함께 소개되어,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이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는 전략 회의부터 현장 훈련, 이슈 대응, 네트워킹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이주민 선교 운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 국내 이주민 선교 로드맵과 액션플랜의 목적과 방향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토

대로 이주민 선교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그 궁극적 목적은 국내외 지역교회들의 이주민 선교 참여를 전략적으로 견인하는 데 있다. 이 로드맵은 세 가지 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로, 지역 교회 중심 선교 참여 촉진: 실행위원회의 핵심 목표는 국내 지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한국교회에 지속해서 제시하고, 평신도 '선교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 선교 활성화를 통해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지형을 변화시키고, 이주민 선교 참여 지수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로, 글로벌 네트워크 및 공동협력 강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및 국제 선교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다. 이주민 선교 사역은 국내 활동이 해외 선교로도 연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지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한국 선교사 파송단체 간의 협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단체들과도 연합이 필요하다. KWMA는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는 정기 기도모임 등을 통해 해외 한인교회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상호 교류하며, 한국교회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다. 셋째로, 사역자 양성과 선교 매뉴얼 표준화 추진: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활동할 사역자(선교 인력)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주민 선교 매뉴얼을 만드는 일도 로드맵의 주요 과제다.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는 협력단체와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와 노하우를 모아 국내 이주민 선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과 대상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한국형 이주민 선교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로잔 디아스포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를 벤치마킹하여 이주민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언어·문화 적응력과 사명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III. 구체적 실행 항목

위의 방향성을 실제 사역으로 옮기기 위해,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대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선교 메뉴얼 표준화 및 보급하는 것이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메뉴얼을 개발하여 각 교회와 기관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교회들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거나 강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과 사례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주민 선교의 모범 규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메뉴얼은 이주민의 국적별·종교별 특성과 지역교회의 상황(규모, 위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담아내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로, 이주민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다. 이주민 선교를 수행할 일꾼을 키우기 위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언급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들과 연계하여 그 일환으로, 이주민 및 난민 사역에 헌신한 평신도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선교에 필요한 언어·문화 이해, 이단 대처, 사명 의식 등을 갖춘 선교 인력을 배출하며, 2024년 첫 훈련에서 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셋째로,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연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해외 선교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이다.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는 지속해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연합하고 상호 교류를 추진하며, 한국 선교사 파송기관들과 협력하여 이주민 사역자를 해외 선교 현장에도 공급하도록 돋는다. 더 나아가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글로벌 차원의 디아스포라 사역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 이단 대응 전략 및 예방 교육이다. 이주민 공동체를 노리는 각종 이단의 포교를 차단하고 새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도 중점 과제다. 실행위원회는 이단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주민 대상 이단 활동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매뉴얼을 개발 및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이단 대처 세미나를 통해 일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파견이나 상담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로 외국인 목회자 네트워크 활성화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성도들과 다문화 교회를 섬기는 외국인 목회자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외국인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격려와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의 사역 경험을 나누도록 돋는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외국인 목회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이주민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과 연합을 도모한다. 실행위원회는 2025년 2월에 외국인 사역자들의 모임인 Korea Intercultural Network/KIN)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지난 4월 부산 수영로 교회의 국제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그 가능성을 더욱 높혔다. 여섯째로, 연합 기도운동 전개한다.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연합기도 모임을 확산시킨다. 이미 일부 지역교회(예: 부산 수영로교회 오기훈 목사, 평택이주민연합회 이민기 목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민 선교 기도모임을 모델로 삼아, 지역별로 정기적인 연합기도회를 조직하도록 권장한다. 실행위는 매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모임 등을 통해 이주민 사역자들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도운동을 통해 범교회적인 선교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곱째로, 귀국선교사 사역 연계 및 배치한다. 해외 선교지에서 사명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돋는 전략이다. 풍부한 타문화 선교 경험을 지닌 귀국선교사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모두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실행위원회는 선교단체 및 파송 교회 리더들과 협력하여 귀국선교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하고 있다.

2025년 3월에, 국제이주민선교단체들의 협력플랫폼인 NextMove의 리더쉽이 위디국제선교회 문창선 목사에게 이양되어 위디의 전문적인 경험치를 참고하여 한국형 귀국 선교사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귀국선교사 이주민 전환 프로그램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들과 해당 내용을 나눌 예정이다. 참고로 ‘교계, 교단, 선교단체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선교사역 인식강화’ 역시 실행위가 지속 추진 중인 과제이다. 각종 교계 모임에서 이주민 선교 이슈를 알리고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선교 담론에 이주민의 제가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IV. 향후 일정 및 계획

이주민 실행위는 2025년 하반기까지 다음과 같은 주요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실행위원회 회원 및 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분담을 시작. 정기 워크숍을 거쳐 이주민 선교 메뉴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둘째로, 2025년 6월 16일에 제2차 이주민 선교 컨설테이션을 새중앙교회에서 개최한다. 전국 지역교회 목회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의 주체가 지역교회이어야 함을 도전한다. 또한 이주민 사역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례를 나누고 제언함으로써, 한국형 이주민 선교 모델을 공유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셋째로, 이주민선교 사역자 연합기도회 모임을 장려하고 매월 한 차례, 격월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정기 기도모임을 촉진한다. 부산 수영로교회 등의 기존 이주민 기도모임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인 기도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넷째로 외국인 사역자로 이루어진 국내 이주민 선교 관련 리더쉽(KIN) 200여명이 10월 WEA 서울 총회의 부분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한국 이주민 선교를 국제네트워크에 연계한다. 다섯째로, 이주민 대상 이단 대응 세미나 정례화를 위하여 KWMA 주관으로 이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여,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의 이단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대상 이단 포

교 전략 사례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계 전체의 이단 대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로, 'NextMove'의 귀국선교사 재배치 프로토콜 구축 및 배포를 위하여 국제파송선교단체, 파송교회 리더, 귀국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귀국선교사 이주민 선교 재배치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표준 프로토콜로 정리하여 2026년 초에 교계에 공유한다. 이 프로토콜은 귀국선교사들의 경험을 국내 이주민 선교에 접목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이다. 이상의 일정들은 실행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열린 4차 로잔대회 이후 국제 선교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2025년 하반기 까지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교회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V. 조직 연계 및 책임 구조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의 사역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KWMA 내 관련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실행위원회 내부에는 각 핵심 과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들이 운영되며, 각 TF별로 전략적 사역 평가체계를 갖추어 목표 달성을 점검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실행위원들이 책임을 맡아 협력하며 이러한 구조는 부서 협업과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이주민 선교 사역 전반의 성장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돋고 있다. 또한 KWMA 본부 차원에서 정기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의 사역 방향과 교계의 기대치가 부합하는지 살피고 있다. 공통 의제에 기반한 강력하고 역동적인 본부 조직 운영을 통해 파트너 간 연결성을 보장하고, 각 지역협의회나 단체들이 더욱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책임 구조 아래에서 실행위원회는 협력단체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지속해서 성찰하고 조율하며, 이주민 선교 사역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동원하고 있다. 요컨대,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는 한국교회, 선교단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허브로 기능하면서,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를 통해 사역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결론

21세기 세계 선교 환경에서 비서구권 교회들이 주도하는 선교와 현지인들에 의한 선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한국교회의 국내 이주민 선교가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국내 사역을 넘어 글로벌 선교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더 이상 주변부의 소수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섬겨야 할 중요한 선교적 이웃이며 동시에 세계 열방을 향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곧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는 바로 New target 2030에 맞추어 이주민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로잔운동 등 국제 선교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열망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인을 세우고, 한국형 이주민 선교 모델을 국내외 교회에 제시하자”는 사명 선언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전략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중이다. 앞으로 메뉴얼 표준화, 선교사역자 훈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이 결실한다면, 한국교회는 260만 이주민 시대를 향한 효과적인 선교적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운 통찰과 모델은 전 세계 교회와 나누어져 함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한 글로벌 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여정에 한국교회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